



경제통통

FOCUS

- “일자리 끝까지 찾아준다”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혁신
- 서울시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조사 결과 발표

ZOOM IN

- “서울광장서 도시농업체험을”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HOT ISSUE

- “우리 마을은 시네마 천국” 도서관·문화회관 영화관으로 변신
- 투자·교육·멘토링 창업 전문가 100인, 성공 창업지원 첫 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김가영 gykim@seoul.go.kr

FOCUS | 01

“일자리 끝까지 찾아준다”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혁신

서울시, 모든 시민에 맞춤형 밀착지원· 시민 체감 일자리 종합센터로 혁신

서울시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최적의 일자리서비스 종합센터로 진화한다. ‘청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베이비부머’ 등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시민의 취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이 센터의 핵심이다.

첫째, 일자리 관련 기관과 정보 시스템을 일자리플러스센터 중심으로 통합해 서울시 내 구인·구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관리·지원한다. 둘째,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인재들 간의 연계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센터에 등록된 구직자,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예정자 등의 우수 인력 풀을 확보한다. 또한, 이들이 고용시장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 상담사가 상담-알선-교육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 셋째,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의 방문을 대학 캠퍼스로까지 확대하고, 채용 기회를 높이기 위해 구인 업체와 청년들의 만남의 자리도 늘리는 등 맞춤형 서비스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의 유기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 미스매칭을 막고 꼼꼼한 취업지원을 펼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공공일자리 및 취약계층 위주의 일자리 연계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 혁신을 통해 청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원하는 베이비부머 등 시민 누구나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취업지원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FOCUS | 02

서울시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실내건축업면허가 없는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 250만 원을 수령했으나, 시공업체에 4,100만 원만 지급하고 6,150만 원은 본사가 챙겼다. 또한, 주방기기·설비 공급 시에도 가맹점주로부터 9,500만 원을 받고 주방기기업체에는 5,000만 원만 지급했다.
- ▶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공사비용으로 2억 1,795만 원을 지불했으나, 시공업체가 본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거와 가벽 공사만 하고 공사를 포기했다. 추가 공사비 7,000만 원을 요구하는 새로운 업체를 공사에 투입했으나 도면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공사도 지연돼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늦게 오픈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2개월 동안 92개 가맹본사에 소속된 서울시 내 1,933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테리어공사 계약체결방법〉 조사에서는 본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또는 본사 지정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경우가 62.2%로 대부분이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본사 또는 본사 지정 업체와 인테리어 시공 시 평균 공사비용은 3.3㎡당 약 309만 원이었으나,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평균 공사비가 약 174만 원으로 43.7%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테리어 공사 만족도〉는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한 경우가 7.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6.02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맹본사로부터 〈리뉴얼 공사 강요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응답 가맹점주 921명 중 154명(16.7%)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및 가맹점주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불공정피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가맹본사 및 인테리어 시공업체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행정기관에 개정건의를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중소기업인 불공정 피해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다산콜: 국번 없이 120)을 운영하고 있다.

ZOOM IN | 01

“서울광장서 도시농업체험을”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나흘간 서울광장이 ‘도시농업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6월 4일(목)~6월 7일(일) 4일간 서울광장에서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을 주제로 「제4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를 열었다.

이번 박람회는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도시농업 모델을 제시해 시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람회는 <도시농업 전시관>과 도시농업의 미래를 알아보는 <학술 대회>, 그리고 도시농업경진대회 등의 <부대 행사>, 씨앗·모종 <나눔 행사>로 구성·진행됐다.

<도시농업 전시관>에서는 가정 내 베란다, 주방을 식물과 같이 연출하고 이곳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과 시민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텃밭 조성 및 작물 재배 방법 등을 소개해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시농업과 기술 융합 사례, 도시농업 앱 존 등 도시농업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래 산업관’과 도시농업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농업관’ 등 볼거리가 풍부했다.

서울 지형을 축소한 텃밭도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서울광장 주변에 마련되는 이 텃밭은 △엄마의 베란다 텃밭 △아빠의 오피스 가드닝 △막내딸의 스쿨 팜 △할머니의 싱싱 텃밭 △마을의 나눔 텃밭 등의 이름을 붙여 구역을 나누고 ‘동북권 배’, ‘동남권 꾸지뽕’, ‘서북권 고추’, ‘서남권 벼’, ‘도심권 약초’ 등 권역별 대표 작물을 심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서울시는 도시농업 박람회를 방문한 시민들이 힐링과 나눔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공동체 회복에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체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OT ISSUE | 01

“우리 마을은 시네마 천국” 도서관·문화회관 영화관으로 변신



숨 가쁜 도시생활 속 가족·세대·이웃 간 소통과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집 근처 도서관, 청소년 회관, 문화 회관이 ‘마을 극장’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공공시설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이웃과 함께 우수 영화와 독립 영화 등을 관람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영화와 함께

하는 우리 마을 소극장」을 운영한다.

성동, 은평, 도봉, 관악 등 6개소 우선 실시, 2018년까지 25개소로 확대예정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우리 마을 소극장’은 우선 △성동 구립도서관 △동대문 답십리촬영소 △은평 증산 정보도서관 △서대문 문화회관 △관악 청소년회관 △도봉 구민회관 등 6개소에서 주 1회 영화를 상영하고, 시민들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해 2018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마을 소극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영화 상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정보를 이웃과 공유하고, 감독·작가 등 영화관계자를 초청해 영화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누며, 주민을 위한 영화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장으로까지 활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일반 상영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청각 장애인용 한국어 자막과 시각 장애인용 화면 해설을 추가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영화와 우수한 작품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영관을 찾기 힘들었던 한국 독립 영화 등도 정기적으로 상영한다.

더불어 영화에 관심 있는 주민을 모집해 영화에 대한 기본교육 등을 진행한 후 상영 작품 안내 등 소극장 운영에 참여하는 ‘소극장 지기’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상영 작품 및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 문화 포털(<http://culture.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문화융합경제과(☎02-2133-2592)로 문의하면 된다.

HOT ISSUE | 02

투자·교육·멘토링 창업 전문가 100인, 성공 창업지원 첫 발

“중국 시장 진출 성공 경험과 비법을 서울의 예비 창업 기업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청년 창업 센터 입주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2년 반 만에 100억 원의 매출 신화를 달성한 ‘제이앤피 인터내셔널’ 심재성 대표는 서울창업포럼 일원으로서 역할을 위와 같이 밝혔다.

창업·마케팅·투자 전문가부터 성공 창업가까지 100명의 창업 전문가가 ‘서울시 창업 정책 멘토’로서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창업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100인의 서울창업 포럼」 출범

6월 3일, 서울시는 기존의 창업 교육, 공간 및 보조금 지원 등에만 치중해 왔던 일률적·분산적 창업지원 정책을 넘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인 혁신형 기업 창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창업지원기관 협의체인 ‘100인의 서울창업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100인의 서울창업포럼’은 창업지원 기관장(34인), 학계 전문가(14인), 마케팅 전문가(19인), 투자사(10인), 창업 미디어 관련 분야 등(10인)과 실제 창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성공 창업가(13인)로 구성됐다.

이 포럼의 가장 큰 특징은 단지 명목상 전문가 협의체가 아닌 정책 연구와 멘토링 기능을 확대해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창업 정책 허브’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 포럼은 6월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간 △브랜드 △교육 △투자 △지원 사업 △마케팅 5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최종 제안 내용을 제출하며, 11월에는 분야별 성과를 상호 평가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외에도 포럼의 활동 성과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해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관·학계가 협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는 조금 더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여, 이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